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0~4/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대승기신론 (전2권)	마명/성본스님	민족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3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8	파아나두라 대논쟁	석오진	운주사
4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담앤북스	9	중용강의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5	왕생요집 (수행과 구원의 서사)	겐신/김성순	불광출판사	10	알기쉬운 명상입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한길

"名山에는 名刹이 있고, 그 속엔 名水가 있다"



통도사 사찰약수

이병인, 이영경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축총림 불지종가 통도사에는 40여 개의 청정한 사찰약수가 흐른다. 사진은 취운암 수조 모습.

영축총림 불지종가(佛之宗家) 통도사에는 40여 개의 청정한 사찰약수가 흐른다.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는 창건 당시 영축산 전체가 습지였기에 넓은 영역에 걸쳐서 물이 났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예전에는 '국계이음'이라 '두 손바닥으로 계곡물을 움켜쥐고 마신다'는 것이 운수납자들의 일상사였다고 말한다. "명산엔 명찰이 있고, 명수가 있다"라는 말은 영축산에 큰절 통도사와 17개의 암자가 있고, 40여 곳의 약수가 흐른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 15년 대국통 자장 스님에 의해 창건된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으뜸인 불보사찰이다. 팔만대장경판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 고려 시대 보조 국사 이래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신라 시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등을 봉안한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한다. 그래서 통도사를 '불지종가(佛之宗家,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요, 국지대찰(國之大刹, 나라의 으뜸 가람)'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한국 차 성지로서의 통도사'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책은 '불지종가'로서뿐 아니라 '차지종가'로서 통도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며, 〈통도사 사적기〉에 나타난 '차샘'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현대적 재평가이다.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의 차는 이미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선덕여왕 재위 시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펼친 자장 스님이 차 문화의 시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도사는 사찰의 창건과 중창에 대해 기록한 사적기에 '차샘'과 '다소촌'이라는 용어가 기록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사찰이다. 통도사 창건 당시부터 차 문화를 시작했다면 우리나라 차 시배지의 역사도 재고돼야 한다. 차의 '통도사 전래설(또는 통도사 시원설)'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병인, 이영경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50여 곳의 전국 약수를 찾아 답사해 수질 분석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했다. 역사상 주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사용 중인 찻물들을 찾아다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 여행이었다.

사찰 약수의 위상과 가치 재정립
보존 요한 '통도사 10대 명수' 소개
2014년부터 4년간 150여 약수 조사
직접 답사 후 수질분석 체계적 시행

답사 결과, 우리나라의 4대 사찰약수로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두륜산 대흥사의 약수들을 꼽았고, 한국의 10대(12대) 사찰명수로 속리산 복천암의 복천약수, 약천사의 약천약수, 옥천사의 옥천약수, 통도사 비로암의 산정약수 및 8곳의 약수를 선정했다. 동시에 이들 약수에 들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을 조사해 수질을 평가했고, '맛있는 물 지수', '건강에 좋은 물 지수' 계산식을 통해 물맛 평가도 진행했다. 이러한 약수들의 수질 특성들을 책 속에 표로 정리해 실었다.

통도사 권역 약수는 순수 상태의 청정한 단물로서 상대적으로 이산화규소 성분이 많고, 칼슘 성분 등 경도 물질도 비교적 낮은 단물로, 전체적으로 맛이 좋고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한 물로 확인됐다. 그러한 40여 곳의 통도사 약수 중에서 비로암의 산정약수와 옥련암의 장군수, 백련암의 백련옥수, 안양암의 영천약수, 자장암의 자장수, 서운암 늪재 석간수 등이 유명하다. 영축산 깊은 계곡의 흰 연꽃 같은 감로수를 끊임없이 보시해주는 백련암 백련옥수는 인근 한방병원에서 길어다 약을 달일 정도이고, 옥련암 장군수는 부산 · 울산의 차인들이 받아다가 찻물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일 년 열두 달을 생각하여 매달 한 번씩 찾아가서 마셔보자'는 취지에서 '통도사 10대(12대) 명수'를 정리해 놓았다.

왜 지금 이타심인가?… 미래 위한 전환의 길



이타심

마티유 리카르 지음/하루헌 펴냄/3만 8천원

〈이타심〉은 저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 5년에 걸쳐 집필한 역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과학자 출신의 수행자로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탁월한 저자로 꼽힌다. 그의 두뇌 활동을 12년 동안 지켜보고 분석한 위스콘신 대학 과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 과학 학술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결과는 현재까지 다섯 번째로 인용이 많이 된 과학 자료로 손꼽힌다.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국제 무대에서 각광 받는 강연자이며 행복 그리고 이타심을 주제로 두 번의 테드 강연은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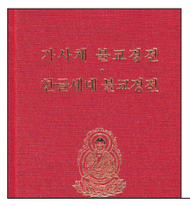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이타심의 본질과 이타심의 존재 여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 그리고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와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타심이 경제적 불평등, 삶의 만족도,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전도 보여준다. 자신과 세상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인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바꾸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심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모든 삶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부 4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철학과 심리학, 신경 과학과 인지 과학, 동물의 진화와 문화의 진화, 경제와 정치, 환경 전반을 총망라하고 있어 인류의 삶과 문화 전반서 작동되는 이타심에 대해 깊이 살필 수 있다.

이 심도 있는 탐색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이타심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사회 경제학자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21세기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꼽히는 〈GDP는 틀렸다〉의 저자 아마르티아 센,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 등 주요 경제학자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또 인용된다. 학술적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상세한 주석과 다양한 참고 문헌이 실려 있는 이 책은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네델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오랜 세월 다듬고 다듬어 펴낸 법요집



가사체 불교경전과 한글세대 불교경전

무비스님, 조현춘 공역/운주사 펴냄/2만원

대강백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는 오랜 기간, 주요 경전을 한글세대를 위하여 알기 쉬운 현대어 번역하고, 이를 독송하기 좋게 가사체로 구성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가사체는 4×4조의 우리 전통 운율로, 개인적으로 독송하기도 좋고, 단체로 합송할 경우 음과 리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장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작업을 한데 엮은 것으로, 주요 경전인 금강경, 아미타경, 관음경, 원각경, 부모은중경, 약사경과 불교의례에 쓰이는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종송, 정근, 법성게, 장엄염불, 혜연선사 발원문, 백팔대참회 등을 가사체로 편역해 엮었다. 또한 불유교경과 보현행원품, 지장경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함께 수록하였다. 두 역자가 오랜 세월 다듬고 다듬어 펴낸 법요집으로, 내용적 충실은 물론이고 독송의 실용성까지 두루 담았다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